

‘장산도 3·18 만세운동’ 주도 장병준 선생 기린다

신안 군민들에게 1919년 ‘장산도 3·18 만세운동’은 3·1만세운동 만큼이나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서남해 도서지역 대표적인 만세운동이어서다.

장산도 출신 포양(包洋) 장병준(1893~1972) 선생이 1919년 3월18일 장산도 주민들과 함께 일제의 국권 침탈에 항거해 만세운동을 펼쳤다. 무안(3월19일), 목포(4월8일) 만세운동보다 앞서 일어났으며 신안군 농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신안군은 지난해 3월18일 장산면에 장병준 선생 위업을 기리는 ‘장산도 역사문화관’을 세웠으며 오는 18일에 장병준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열린다. 대한독립에 헌신했던 애국열사들을 추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장병준 선생 연보

- 1893년 6월10일
- 신안군 장산도 출생
- 한학 공부후 목포 거쳐 서울 보성전문학교
- 일본대학 법학과 진학
- 1917년
- 일본대학 중퇴후 귀국
- 1919년 3월
- 장산도 주민과 만세시위 후 도피
- 1919년 4-5월
- 중국 상하이 임정 의정원의 전남도 대표 의원으로 참석
- 중국-러시아 등 독립운동 단체 운동 주도
- 1920년 3월
- 이동욱, 박기영 등과 3·1운동 1주년 기념투쟁 주도 혐의 일경에 체포됨
- 1922년 6월
- 석방 뒤 장산도에서 학교설립운동, 하의3도농민운동 지지 표명
- 1927년
- 좌우 망라 민족통일전선 신간회 목포지회 참여
- 1929년 1월
- 신간회 목포지회장 선출돼 전국대회 참가, 광주학생운동 진상규명 참여
- 1931년
- 신간회 해산에 사회활동 참여 제약
- 1946년
- 한민당 광주지부장, 전남도당 위원장 선임
- 1959년
-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선임
- 1960년
-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 참여
- 참의원 선거 낙선
- 1972년 3월16일
- 별세, 광주 전남 사회장으로 장례

● 3월18일 주민과 만세운동 후 도피

1919년 3월18일 오전 10시. 장병준은 장산도 주민 수십명을 데리마을 사정(射亭)에 모아 놓고 연설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만세시위 소식을 전하면서 만세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대열을 이끌고 주변 마을을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오후2시까지 만세 시위를 벌인 장병준은 김극태, 고제빈 등 주도자들과 함께 섬을 떠나 도피에 들어갔다.

목포경찰서장은 이를 뒤 장병준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에 들어갔다. 당시 수배 내용이 흥미롭다. 사진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인상착의로만 지목하고 있다. ‘안색은 희고 비만한 편, 둥근 얼굴, 큰 눈, 머리 모양은 하이칼라형으로 가리마를 타고 기타 특징은 없음.’ 장병준의 실제 외모와 다른 것으로 장산도 주민들이 일제 경찰에 터무니 없는 정보를 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장병준은 3월23일 대전역에서 일행과 헤어져 서울로 간다. 나머지 일행이 도피를 위해 부산을 거쳐 일본으로 떠날 생각으로 하고 있던 반면, 장병준은 서울에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3월18일 시위, 치밀한 도피와 서울행, 서울에서 활동과 상해망명 등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음을 보여준다.

● 상해 임시정부 비밀요원 활동

장병준은 1919년 4월30일~5월13일 상하이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4회 회의에서 한남수, 김철과 함께 전라도 대표 의원으로 선출됐다. 그렇다면 3월23일~4월 말까지 뭍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상해 임시의정원 의원이 될 수 있었을까. 장산도 시위를 주도했다지만 수 십명 정도가 참여한 소규모였고 오래 지속하지도 못했던 터다.

장병준 스스로는 이 의문에 답하지 않았다. 1920년 3·1운동 1주년 기념투쟁 이후 체포된 다음에도 그는 임시정부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침묵했다. 그와 함께 1920년 투쟁을 주도했던 이동욱의 진술에 나타난다. 이동욱은 어떻게 장병준을 알게 됐냐는 일제 경찰의 질문에 “1919년 4월23일 대한민국대회가 조직됐을 때 자신은 대표 일원이었고 장병준은 간부 중 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대한국민대회’는 3·1운동 직후 이규갑, 흥면희, 한남수, 김사국 등이 준비해 4월23일 13도 대표자 24인이 모여 ‘한성정부’ 수립을 선언한 모임이다. 이준숙은 장병준 보성전문학교 선배로 1918년 일본 중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니 비슷한 시기 서울과 도쿄 유



1919년 3월18일 신안 장산도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운동가 장병준 선생.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활동하는 등 치열한 활동을 펼쳤다. **신안군 제공**

주민들과 시위 이후 도피생활 상해 임시정부서 의정원 활약 1927년 좌우합작 신간회 활동 1960년 참의원 선거출마 고배 1972년 영면, 광주전남 사회장

학생활동을 함께 했던 터였다. 이후 임시정부에서도 장병준은 이준숙, 흥진희, 한위건 등 함경도 출신 유학생 그룹과 행동을 같이 했으며 이들 중 일부가 사회주의 노선을 택하게 됐다. 이런 경험은 장병준이 1920년대 송내호 등 사회주의자들과 동



1972년 3월 장병준 장례 보도(당시 전남일보)

지적 관계를 유지하며 신간회와 같은 좌우 연합의 민족통일전선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장병준은 만주와 시베리아, 국내 잠입해 독립운동 조직을 지원하고 임시정부와 연락하는 비밀 임무도 수행했다.

일제의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민국회에서 장병준을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연락했으며 임정이 보낸 조선독립 관련 불온 문서를 배부했다. 박기영은 보성학교 출신 천도교도였으며 박기영, 이동욱과 연계되는 임정 인물은 장병준이 틀림 없다.

● 3·1운동 1주년 유인물 배포 뒤 체포 장병준 행적이 공식적인 기록에 다시 등장한 때는 1920년 초부터다.

1920년 2월28~29일 서울, 대전, 대구, 마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대한국민회, 혈성단 등 명의 ‘경고문’이 뿌려졌다. 3·1 운동 1주년을 맞아 민족의 처지를 개탄하면서 상인과 학생 봉기를 촉구하는 유인물이었다. 각지에서 용의자들이 체포됐다. 암태도 소작쟁의 지도자 서태석도 포함됐다. 주도자격인 이동욱, 장병준이 3월 체포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다.

의심스러운 건 장병준이었다. 이동욱보다 행적도 의심스러웠고 목포경찰서에서는 장병준이 상해 임시정부와 관련돼 활동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출됐

다. 비교적 늦게 체포됐던 장병준은 최대한 임시정부와 관련을 감추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 1927년 신간회 목포지회 참여

1922년 석방된 이후 장병준은 장산도에 학교 설립 운동 등을 추진하거나 하의도 농민운동 지지 표방 외 사회운동 참여 없이 낱알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송내호가 조직한 독립운동비밀결사수의위친계에 참여하는 등 지역 민족운동과 유대를 맺고 있었다. 장병준이 다시 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부상된 것은 1927년 신간회 목포지회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좌우 망라 민족 통일 전선인 신간회에 초기 임시정부 통합운동 중심이었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자에 신망이 있던 장병준은 중요한 임무를 맡기에 적합했다.

신간회 목포지회 운영은 순탄치 못했다. 조극환과 서병인 간 갈등은 목포 지역 사회 운동권 전체를 양분하는 파국을 가져왔다. 결국 간사였던 장병준은 사태 수습과 활동 정상화를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1929년 1월 지회장이 돼 전국대회에 참가하고 광주학생운동 진상규명에도 참가하는 등 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1931년 신간회가 해산되면서 사회운동은 위축됐고 장병준도 더 이상 활동을 전개할 수 없었다.

● 1960년 참의원 낙선·1972년 영면

해방 이후 장병준도 1946년 한민당 광주지부장, 전남도당 위원장 등을 맡는 등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1946년부터 시작된 반탁운동에 참여하지만 좌우 통합에 주력했고 사위들도 좌익에 가담했던 그는 좌·우 대결로 치닫는 정국에 개입할 의지가 없었던 듯하다. 그가 정치활동에 다시 열정을 보인 것은 이승만 독재가 기승을 부리면서부터다. 1959년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임된 그는 1960년 3·15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앞장 서는 등 민주화와 개혁에 나섰다.

1960년 민주당 소속으로 참의원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낙선한 그는 이후 다시 정치판에 나서지 않았다. 1972년 3월16일 장병준이 별세했다. 대한광복회 전남지부가 중심이 돼 ‘고포양 장병준 선생 사회장회위원회’를 조직했다. 3월20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사회장 장례식에 당시 전남도지사, 전남도 교육감, 광주시장과 광복회 전남지회 회원과 시민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운구 행렬은 군약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금남로를 지나 영면의 길로 떠났다. **신안-홍일갑 기자**

전남 명문가 인동 장씨 집안, 3대 걸쳐 사회 지도층 배출

신안 장산도 일대에 사는 인동 장씨 집안은 전남의 명문가로 유명하다. 구한말 장산도 일대 염전과 논밭을 가진 만석꾼 부호였다.

장씨 집안은 1세대 독립운동가, 2세대 정치인과 관료·의사, 3세대 학자를 배출하며 이름을 떨치고 있다.

● 1세대 - 독립운동가로 활동

장병준의 아버지 장진섭씨는 자식들을 일찍 유학을 보냈다. 장남 장병준은 일본 니혼대 법과를 나왔고 장재식 전 장관의 아버지인 둘째 장병상씨는 서울 보성전문

을 거쳐 일본 메이지대를 졸업했다. 셋째 흥재씨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에 참가했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해 어린 나이에 사망했다. 막내 장흥열씨는 서울 휘문학교와 중국 베이징국민대학을 다녔다. 이들이 장씨 집안의 1세대다.

형제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장병준씨는 김구 측근으로 임시정부 외무부장이었고 장흥열씨는 만주 신흥무관학교를 나와 독립군에 몸담았다. 장흥열씨는 광복 후 반민특위 검사와 제헌 국회의원을 지냈다. 장병상씨는 국내에서 철도공무원을

지냈다.

● 2세대 - 사회참여 활발

2세대 주축은 장병상씨 네 아들이다. 맏이인 장정식씨(사망)는 전남대의대 교수였고 장하진 전 장관·장하성 교수의 아버지 장충식씨(83)는 한국은행을 다니는 도의원을 지냈다.

셋째 장영식씨(80)는 장면 정부에서 경제비서관을 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 때 두 번이나 미국으로 망명했다. 막내 장재식 전 장관은 국회의원 전 국세청 차장과

주택은행장을 지냈다.

아버지 장병상씨는 아들 4형제를 모두 전쟁터로 보냈다. 장정식씨는 군의관으로 참전했고 장충식씨는 미군 2사단 소속으로 압록강까지 진격했다. 고등학생이던 장영식씨와 중학생이던 장재식씨는 학도병으로 지원해 낙동강 전선에 배치됐다.

● 3세대 - 명문대 교수 등 배출

‘하’자를 돌림자로 쓰는 3세대 장씨가 문은 이름난 교수를 배출했다. 장충식씨 맏딸 장하진 전 장관은 학생 운동권 출신 시민운동가로 충남대 교수를 지낼 때 ‘여

성 정치세력 시민연대’ 창립을 주도했다. 장 전 장관 동생 장하성 교수는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운동을 벌이면서 시민운동의 새 지평을 열었다. 막내 장하경씨는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재식 전 장관의 아들 장하준 교수는 한국인 첫 케임브리지대 교수다. 동생 장하석 교수는 런던대 교수를 거쳐 2010년 형이 교수로 있는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로 옮겼다. 케임브리지대 700년 역사상 형제가 동시에 교수로 재직한 사례는 최하다. **신안-홍일갑 기자**